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8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30(화) 오전 11시부터 보도가능)

배포일시	2016. 8. 30(화)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담당과장	이경호 과장 (044-203-4030)	담 당 자	박순철 사무관(044-203-4032)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체계 점검"

-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30.(화)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었다.

○ 회의는 **상반기**에 **발표**한 **주요 수출대책**의 **이행상황**과 **하반기 중점추진 목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6. 8. 30(화) 12:00 ~ 13:30 / 중기중앙회 회의실 (5층)

□ 참석자
- ○ (산업부) 장관, 무투실장, 무역국장, 소재부품국장, 시스템국장 등
- ○ (지원기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중진공, 중기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 ○ (업종단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철강, 섬유

□ 안건
① 주요 수출대책 추진현황 및 평가(산업부)
② 수출지원기관별 사업현황 및 계획(지원기관)
③ 업종별 수출동향 및 대응방안(업종단체)

□ **주형환 장관**은 지난 7월까지의 수출은 물량이 소폭 증가(0.8%)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급락(△10.8%)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 **무투회의**나 **민관합동회의** 등을 통해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 **주력품목 물량과 단가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어 **추세 반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주요 수출대책 이행상황 및 목표 】

□ **주요 단기 수출대책**의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 먼저, **주체측면**에서 상반기 중 **내수기업 3,128개사**를 **수출기업화**에 성공,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약 **1.5%** 가량 **확대**되었으며, 연말까지 **중소중견 수출 2,000억 달러** 돌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품목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온 **5대 유망 소비재**가 **1~7월 중 123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6%**에서 올 상반기에는 **4.4%로 증가**함, 향후 설화수와 같은 **매출 1조 명품 소비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수출상품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시장측면**에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와 적극적인 아세안(ASEAN) **시장 개척** 노력 등으로 **올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10.1%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3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하반기에는 **정상외교**를 **활용**한 **신흥시장 개척**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방식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5.7% 증가**하며 온라인이 소비재 수출의 중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음,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1.5조원) 대비 33% 증가('15년대비 60%)한 **2조원**으로 **상향**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활용**한 판촉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을 10월부터 시행하여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약 **200여개 정부지원사업 선정**과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대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 민간의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함('16.3월)

○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세제,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일괄·집중**하여 지원('16.7월)하고 있으며,

- 특히, 전기차 관련하여 주행거리(2배↑), 충전기(3만기 설치), 지원방안(보조금 상향) 등 **보급 시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했다.('20년 수출 20만대)

○ **이업종간 융복합·합종연횡** 등으로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인 국가대표급 **융합얼라언스** 구축·운영중이다.

* 자동차('16.2), 신소재('16.3), 바이오('16.5), 에너지신산업('16.7)

【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 산업부의 발표에 이어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그간의 **협업 추진현황**과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 상반기에 **수출지원기관**은 해외정보 및 콜센터 서비스 통합지원,

코트라(KOTRA) 해외인프라 공동 활용,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관간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해외전시회**의 경우 7월부터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해 코트라(KOTRA)·중소기업중앙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지자체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전시회 개최일정,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 해외전시회 한국관 **통합디자인**(KOREA BI)를 개발(4월)해 보급하고 **통합한국관** 참가도 확대했다.('15년 33회 → '16년 62회)

□ 한편, 각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른 **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 종합지원: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중앙회 등
* 품목지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 코트라(**KOTRA**)는 연내 성과창출을 위해 **주요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연간 성과결산형 수출상담회**를 개최(11월)할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출금리**를 일정기간(1년간) **우대**(이자환급)**한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해외시장정보와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내수 중소기업에 국내 무역상사를 연계시키는 "**무역상사·우수중소기업 수출한마당**"을 개최한다.(5월)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국 검역장벽 해소품목**(김치, 포도 등)에 대한 **판로개척**과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중앙방송(CCTV) 홍보다큐 제작·방영(11월), 과실 전문 온라인 몰("이궈왕") 신규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영세·초보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무역보험**을 **무료 지원**(4월)하고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수출시장 단기성 보험 확대**(9월) 계획을 발표한다.

【 업종별 수출동향 및 대응방안 】

□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 수출 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으나 중국·인도 등 유망 시장 집중 공략, 신제품 출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성수기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정부**에서도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등 마케팅 지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후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형환 장관**은 "20년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겨우 금메달 1개에 불과했던 **영국**이 **리우**에서 **금메달 2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쳐 **집중 대응**하는 영국의 '**내셔널팀' 모델 전략**에 주목하여 우리도 **민관**이 모두 **수출한국 내셔널팀**의 **핵심멤버**라 생각하고 수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매진하겠다."라고 당부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박순철 사무관(☎40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참석자

구 분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정 부 (5)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승일	〃 무역투자실장	
	박진규	〃 무역정책관	
	유정열	〃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김영삼	〃 시스템산업정책관	
수출 지원 기관 (9)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종합지원기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이사	품목지원기관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
	안인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금융지원기관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
업종 단체 (8)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영원무역 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석유화학협회
	강학서	현대제철 대표이사	철강협회
	송현종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협회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부사장	디스플레이협회
	김재섭	두산공작기계 사장	기계산업진흥회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참고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수출지원기관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산과 수출현장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신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출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7월까지 수출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들의 물량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고,
여기에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추세반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주체·품목·시장·방식 등 수출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체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중 내수기업 3,128개사를 수출기업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도 약 1.5%p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5천개 수출기업화 목표를 훨씬 뛰어넘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품목에서는,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온 5대 유망 소비재가
금년 7월까지 123억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6%에서 올 상반기에는 4.4%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설화수가 단일브랜드로는 최초로
매출 1조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后(LG생건)의 1조 클럽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측면에서는,
한-베트남 FTA 발효 효과와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 등으로
올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10.1%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상외교 후속성과를
집중적으로 챙기는 한편, 기업별 성공사례를
시장별·분야별로 모아서 연말에 종합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예산(3,600억원)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수출 등에 대한 무역보험을
6조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측면에서는,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5.7% 증가하는 등
온라인이 소비재 수출의 중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목표도
당초 1.5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면세점 판매 수출 인정을 10월부터 시행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한 통합정보 제공,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정비도
10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노력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8.13일 발효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체격은 줄이되,
체력은 보강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R&D, M&A 등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우리 수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비재 수출대책

저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비내구성 소비재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자, 반도체, 휴대폰은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고
자동차도 5대 강국에 오르는 등 내구성 소비재분야는
세계적 반열에 올라와 있고 글로벌 브랜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내구성 소비재분야에 있어서는
겔랑(프랑스), 이케아(스웨덴), 자라(스페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커녕, 아시아 시장에서 통하는
Regional 브랜드도 만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가까운 중국과 ASEAN, 중동의 소비자들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들의 소비시장의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농식품, 생활유아용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 자체가 품격이고 가치인 그런 프리미엄급 소비재 브랜드가
2~3년 내에 적어도 10개 이상 나와 줘야 합니다.

9월29일부터 1달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내 면세점에서
우리의 소비재가 뒷켠으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비내구성 소비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토리와 문화와 결합되어야 하고,
내구성 소비재와 차원이 다른
창의적인 수출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수출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원활한 협조와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최근 Financial Times*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만들며
산업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영국의 새 내각에게
이번 리우 올림픽으로부터 선택과 집중의 교훈을 얻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FT기사출처: “Yesterday’s politicians fuelled the British gold rush in Rio”(2016.8.6.)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겨우 금메달 1개에 불과했던 영국이
리우에서 금메달 2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년전 존 메이저 총리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영국이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쳐 집중 대응하는 내셔널팀 모델은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의 창시자격인 영국에서도
국가 전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출한국 내셔널팀의 핵심 멤버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하반기에 수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함께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